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호 [주제 제 25524호] 주제 106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서홍찬동지,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진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 공장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공공장과 그 운영에 필요한 수산사업소건설을 직접 밟기 하시고 서해안의 금산포지구에 위치도 정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5년 3월 현지에 나오시어 모든 대상을 면후 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건설하도록 구체적인 방도와 은정깊은 조치를 위해 주시었을 뿐만 아니라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의 이름도 물소 명명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을

괴롭는 실상마다에 받아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결사판결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함으로써 능금도와 취임, 능금도와 품질사이에 계방을 새로 쌓거나 정리하면서 부두와 호

안, 생산 및 생활건물, 다중살림집들, 학교, 유치원, 소학교, 종합편의, 자

연에 네트기발전소 등을 건설해야 하는 막대한 공사를 불과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의 생산건물, 간도식 저장고, 부두 및 호안, 능금도-취임 빙조제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지구의 능금도에 우리식의

현대적인 젓갈가공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식의 기술공정을 확립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원료준비, 혼합, 육성, 주입 등 모든 생산공정률을 기계화, 자동화, 흐름선화하고 통합생산체계도 원만히 구축해놓았으며 용기보장공정도 잘 꾸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젓갈품의 품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생산현장의 위생안

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놓고 능력이 큰 경도식저장고도 훌륭히 건설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부두 및 호안, 능금도-취임 빙조제 공사도 흥사를 데없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사가 전혀 없고 해양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가까이에서 보아도 멋있고 멀리에서 보아도 최한하다고, 풍치수려한 능금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금산포지구에 또 하나의 경관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수산물가공기지인 것만큼 서해안의 물고기종류와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젓갈물을 맛있게 만들며 대한 문제, 우리식의 젓갈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인기있는 명상품을 내놓으며 새로운 젓갈품들을 개발할 때 대한 문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뿐만 아니라 전력을 잘 꾸밀 때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 운영에서 치점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건설된 금산포수산사업소는 큰 배

들을 수십척 헌속계류할 수 있는 방파제부두와 호안, 하목장, 상가대, 행동가공장은 물론 사무청사, 문화회관, 어로공항숙, 창고 등 수산물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어로공항숙을 비롯한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조업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회 대회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자

## 당정책옹위전에서 중시한 문제

청천강화력발전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회 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봉해의 전민총동력전선에 세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새자자 나래기자 하여야 합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세시된 당정책을 결사貫彻하는데는 생산단위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사업에서의 기세는 대단히 높다. 문제는

일군들의 투신, 이것이 곧 정치사업

율에 발전소에서는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할 목표를 세웠다.

아름한 파제였다. 문제로 된 것은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지로 놓고나가자 할 일군들속에서 불리한 조건을 끼울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 회인들은 주진을 세웠다.

생산적양향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를 정착하고 일군들에게 지시하는 위치에서 가 아니라 앞장에서 노동으로 개척하는 기수가 되어 두신하는 정치사업으로 둘과구를 열어나가는 것이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늘어난 전력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중심고리를 보이며 파업증기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과 예비기대조성을 위한 문제로 보았다. 그려면 종전체

정체의 첫

정초에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협의회에 참가하려는 현장을 막았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파업을 판찰하기 위해 한 일련 첫 협의회인 것만을 아마도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토의될 것이라는 제나름의 생각을 앞

초급당위원회

깨걸고 보수전류를 벌렸다.

이것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이었다.

노동자들은 주지없이 회실에 뛰어들어가 용접작업을 벌렸다.

당사업의 파력을 당시 세시한 전력생산목표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여 정초부터 전력생산에

서 절제없는 혁신이 일어나면서 고고하고 청천강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를 보자.

일군들은 다음에

보수전류를 끊었다.

그날 초급당일군은 협의회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그루를 냄았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파업을 높이 달고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는 있다. 많은 당정책옹위전의 제일 기수가 되어야 할 당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 지시하고 청장에 나와 호소나 하는

식으로 사업을 대처했다면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는가. 한

물을 내놓는 무신혁, 바로 이것

이 온전조선에 당정책옹위전의

불리우기 세하게 일어 한 중요

한 정치사업이었다.

협의회 안건

세워둔 협의회가 식은 다음에

보수전류를 끊어버린 방식에서

벗어나 가arel 상황에서 파업

기관을 교체해야 하였다. 그때

야 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

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전투

전투장에서 물을 끌고

온 물을 끌어온 것이다.

전투장에서 물을 끌고

온 물을 끌어온 것이다.

기술자들은 물을 끌어온 것이다.





## 거례의 통일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

얼마전 피의들이 각 분야의 「업무계획 보고」라는 것을 하면서 박근혜의 대결정 책을 그대로 강행할 기도를 드러냈다. 피의 고부와 통일부는 「업무계획 보고」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알약강화』를 올해의 기본과제로 조아았으며 피의 군부도 『북핵 위협대응 능력의 강화』와 『하고 한 군사대비 세의 유지』를 위해 무역 증강과 전쟁연습을 일종 강화할 기도를 드러냈다. 『대통령 명령』을 하는 피의 고부는 『북핵 위협대응 능력의 강화』와 『하고 한 군사대비 세의 유지』를 위해 무역 증강과 전쟁연습을 일종 강화할 기도를 드러냈다. 『대통령 명령』을 하는 피의 고부는 『북핵 위협대응 능력의 강화』와 『하고 한 군사대비 세의 유지』를 위해 무역 증강과 전쟁연습을 일종 강화할 기도를 드러냈다.

박근혜의 범죄적인 대결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피의 고부는 온 민족을 힘을 학자 주주통일의 대통령을 염두에 놓으려는 거래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예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통일의지가 어떤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는 가슴마다에 반야한 고속화적인 통일대전을 풍일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애국애족호소와 성의 있는 제의를 말아들어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 거래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하지만 피의 고부는 정초부터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광포하면서 고무는 『기조의 유지』, 『원칙의 전진』이라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으로 박근혜의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을 계속

강행 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때 국방의 무리가 빛어난 대결시 대를 광장내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힘겨워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황교안의 대결정책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눈물을 당장 걸어치우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의 대결정책은 현실을 통해 그 반통일적인 본질이 날마다 드러난 데

서 사의 폐기이며 『북핵 보복』과 『제재책』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사실 최악의 미국 상황에 빠져있다. 피의 고부들은 그 무슨

『북핵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다는 간관

밀여 외세의 아침에 떨어놓은 북핵전쟁책동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

키고 조선반도에 국도의 혁전경위험을 조성하였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에 막대한 해

독을 끼친 박근혜의 대결정책에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달았다.

박근혜의 대결정책은 북남관계 개선과 시대의 힘으로 역행하면서 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한 반통일죄악에 따른 용당한 대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도와 그 폐

거리를 이미 민심의 창을 열어놓은 남조선인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곤혹의 운명에 처한 것은 시

대의 힘으로 역행하면서 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한 반통일죄악에 따른 용당한 대가이다.

민족의 통일지향과 달을 쌓고 동족대

경에 미처 남겨온 이런 천하의 악한들이

남조선에서 권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북남관계가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 역전경위험을 조성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새해에도 대중적인 초

불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온정철

것은 단순히 박근혜의 대결정책을 위해 서가 아니라 피의 고부가 추구하는 박근혜의 정책을 그대로 내밀기로 한 피의 고부는 『북핵 위협』과 『제재책』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사실 최악의 미국 상황에 빠져있다. 피의 고부들은 그 무슨

『북핵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다는 간관

밀여 외세의 아침에 떨어놓은 북핵전쟁

책동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

키고 조선반도에 국도의 혁전경위험을 조

성하였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에 막대한 해

독을 끼친 박근혜의 대결정책에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달았다.

박근혜의 대결정책은 북남관계 개선과 시대의 힘으로 역행하면서 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한 반통일죄악에 따른 용당한 대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도와 그 폐

거리를 이미 민심의 창을 열어놓은 남조선인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곤혹의 운명에 처한 것은 시

대의 힘으로 역행하면서 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한 반통일죄악에 따른 용당한 대가이다.

민족의 통일지향과 달을 쌓고 동족대

경에 미처 남겨온 이런 천하의 악한들이

남조선에서 권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북남관계가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 역전경위험을 조성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새해에도 대중적인 초

불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온정철

## 《대통령자격 없음을 드러낸 7시간 암연서》

남조선신문 이 폭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1일 『대통령자격 없음을 드러낸 7시간 암연서』라는 제목의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청와대가 10일 『현법제판소』에 제출한 『세월호』호를 사당시의 7시간행적에 대한 답변서가 오류와 보증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답변서는 그대로 7시간행적을 계속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새해에도 대중적인 초

불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온정철

다 해도 국민의 화를 돋구는 대

이를 밀어붙여 국민이 없다고 사

로운 비난하였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청와대

도가 나간 이후 1시간이 지난

에서 사전방영 6시간이 넘어서야

되여서 애란에서 애란으로 부터

이 첫 번째 보도를 받았다는 달

번이 대표작설에 밝혔다.

언제는 『녀성대통령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이제는 속수

인 판자가 질투실이라고 하니

마약을 보면 뜻을 더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세월호』호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였고 직무를 테면만

있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대응체도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 오직 피의자로서의 자각이 있다.

모든 권리와 원칙을 헛되이 시간을 허비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세월호』호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였고 직무를 헛되이

시간을 허비해나가고 있다.

사실은 박근혜는 『대통령』을 계획하였다.

다 해도 국민의 화를 돋구는 대

이를 밀어붙여 국민이 없다고 사

로운 비난하였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청와대

도가 나간 이후 1시간이 지난

에서 사전방영 6시간이 넘어서야

되여서 애란에서 애란으로 부터

이 첫 번째 보도를 받았다는 달

번이 대표작설에 밝혔다.

언제는 『녀성대통령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이제는 속수

인 판자가 질투실이라고 하니

마약을 보면 뜻을 더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세월호』호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였고 직무를 헛되이

시간을 허비해나가고 있다.

사실은 박근혜는 『대통령』을 계획하였다.

다 해도 국민의 화를 돋구는 대

이를 밀어붙여 국민이 없다고 사

로운 비난하였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청와대

도가 나간 이후 1시간이 지난

에서 사전방영 6시간이 넘어서야

되여서 애란에서 애란으로 부터

이 첫 번째 보도를 받았다는 달

번이 대표작설에 밝혔다.

언제는 『녀성대통령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이제는 속수

인 판자가 질투실이라고 하니

마약을 보면 뜻을 더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세월호』호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였고 직무를 헛되이

시간을 허비해나가고 있다.

사실은 박근혜는 『대통령』을 계획하였다.

다 해도 국민의 화를 돋구는 대

이를 밀어붙여 국민이 없다고 사

로운 비난하였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청와대

도가 나간 이후 1시간이 지난

에서 사전방영 6시간이 넘어서야

되여서 애란에서 애란으로 부터

이 첫 번째 보도를 받았다는 달

번이 대표작설에 밝혔다.

언제는 『녀성대통령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이제는 속수

인 판자가 질투실이라고 하니

마약을 보면 뜻을 더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세월호』호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였고 직무를 헛되이

시간을 허비해나가고 있다.

사실은 박근혜는 『대통령』을 계획하였다.

다 해도 국민의 화를 돋구는 대

이를 밀어붙여 국민이 없다고 사

로운 비난하였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청와대

도가 나간 이후 1시간이 지난

에서 사전방영 6시간이 넘어서야

되여서 애란에서 애란으로 부터

이 첫 번째 보도를 받았다는 달

번이 대표작설에 밝혔다.

언제는 『녀성대통령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이제는 속수

인 판자가 질투실이라고 하니